

## 영어권 중국정치 개설서의 기술(記述) 방법과 범위에 대한 고찰

김 영 진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 < 목 차 >

- |                          |             |
|--------------------------|-------------|
| 1. 서론                    | V. 결론에 대신하여 |
| 2. 개설서에 나타난 기술체계와 방법, 대상 | 참고문헌        |
| 3. 중국 정치체제에 대한 규범적 평가    | Abstract    |
| 4. 평가                    |             |

Key words(중심용어): 중국정치(Chinese politics), 방법론(methodology), 지역학(sinology), 중국학(area studies), 정체성(identity)

### 국문요약

이 글은 최근의 중국정치에 대한 영어권의 연구 동향과 그 방법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국내 중국정치 연구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를 상기시키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정치체제 전반에 대한 기술, 즉 개설서들을 일차적으로 분석의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이것을 기초로 하여 개설서 다루어지는 개별 관심 영역에 있어서 중요 연구 성과들을 보완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영어권 중국 정치체제 연구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영역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것은 첫째 서술체계와 방법론에 관한 문제이다. 여기서는 무엇보다도 과연 어떤 이론이나 이론체계에 입각하여 중국정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둘째는 연구 대상 내지는 그 범위이다. 그것은 영어권에서 중국정치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셋째는 중국 정치체제 기술에 나타나는 가치관 내지는 연구자의 규범적 평가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학문은 객관성과 가치중립성을 지향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전체적으로 개설서들은 외형상 중국적 특징을 수용하는 일종의 중국학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방법이 엄격한 의미의 중국학적 방법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것은 실제 중국적 특수성을 체계적 개념이나 분석의 틀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대화라고 하는 서구적 특징의 획득 과정에서 중국의 구체적인 경험을 강조할 뿐이기 때문이다.

### 1. 서론

오늘날 국내 중국정치 연구는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다. 그것은 한중간의 관계가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긴밀해지면서 중국이해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유학이 크게 확대되면서 인적인 구성에 있어서도 중국내 학위자의 수가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속히 상승하여 이제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와 더불어 중국정치에 있어서도 중국 국내의 시각이나 방법론이 점차 강하게 전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중국 정치 연구에서 영어권, 특히 미국을 위주로 하는 국외의 연구는 여전히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sup>1)</sup> 이것은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영역에서 체계모니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영어권의 영향력을 반영한다. 또한 중국정치 과정이 여전히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보나 자료의 중요성이 크고, 그와 더불어 그것에 우위를 갖고 있는 영어권의 자료는 국내 중국정치 연구에도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보다 본질적으로 영어권의 중국정치 연구는 특히 그 이론적 측면에서는 국내 중국연구에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고, 지금은 중국에도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그것은 지역연구가 학문 일반의 일부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내 연구에서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영어권의 중국정치 연구는 모방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연구의 정체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영어권 중국연구가 그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없이 그대로 국내에 수용되는 경향이 크다는 점이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학문의 개방과 교류 그리고 방법론상의 중립성이라는 가정 아래 합리화되었지만, 국내 중국연구의 방향을 왜곡시키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그것은 오랫동안 국내외 정치적 이유에서 중국정치에 대한 연구가 단절되거나 매우 부족했던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사실 21세기 전략적 경쟁대상국으로서 각종 영역에서 미국과 중국은 각종 영역에서 첨예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정치 연구 분야도 상당히 다양하지만, 중국연구의 상당 부분은 일정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전개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것 같다.

연구사적 고찰에 의하면, 중국정치 연구는 시기별로 커다란 차이가 나타난다.<sup>2)</sup> 그것은 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정치적 상황, 그리고 유행하는 정치학 이론 등에 상황적 변화에 따라서 중국정치에 대한 외부의 해석이 매우 다르다는 것이다.<sup>3)</sup> 이를테면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전체주의적 페러다임, 1960년대 후반 문화대혁명의 정치적 분열과 혼란을 거치면서 1970년대의 파벌주의적 페러다임, 그리고 시장경제 체제의 도입과 대외개방이 시작되면서 1980년대 신제도주의적 페러다임으로 구분하는 것이 그 예이다.<sup>4)</sup> 이것은 한편으로 중국정치 연구의 발전과정과 더불어 다른 한편으로 중국정치에 대한 일관성 있는 이론적 설명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단순히 중국정치 자체의 불연속성에 기인하는 것만은 아니며, 중국정치 방법론에도 그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제까지 중국정치 연구에서 제도나 정책분석이 중심을 차지함으로써 중국의 정치체제 저변에 존재하고 있는 연속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sup>5)</sup> 다시 말해 이제까지 중국정치 연구는 각 시기에 중국정부가 제시한 제도나 정책에 대한 기술에 충실하였을 뿐, 보다 중국정치 체제의 구조에 대한 일관적인 이론체계를 창출해 내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글은 최근의 중국정치에 대한 영어권의 연구 동향과 그 방법론을 비판

1) 전성훈, 이민자, “한국과 중국정치 연구,” 정재호 편, 『중국정치연구: 영역, 쟁점, 방법 및 교류』, 서울: 나남, 2000, pp. 259-308.

2) Harry Harding, "The Study of Chinese Politics: Toward a Third Generation of Scholarship," *World Politics*, Vol. 36, No. 2 (Jan. 1984), pp. 284-307.

3) Nina P. Halpern, "6. Studies of Chinese Politics," David Shambaugh ed. *American Studies of Contemporary China*, New York: M.E. Sharpe, pp. 120-137.

4) Harry Harding, "The Study of Chinese Politics: Toward a Third Generation of Scholarship", *World Politics*, Vol. 36, No. 2 (Jan. 1984), pp. 284-307.

5) Goldstein, Avery, "The Domain of Inquiry in Political Science: General Lessons from the Study of China," *Polity*, 21: 3(Spring 1989), pp. 517-537.

적으로 검토하여 국내 중국정치 연구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를 상기시키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정치체제 전반에 대한 기술, 즉 개설서들을 일차적으로 분석의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이것을 기초로 하여 개설서 다루어지는 개별 관심 영역에 있어서 중요 연구 성과들을 보완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개설서들은 대학에서 중국정치 강의자료로서 집필되기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의 좁은 영역에서 중국을 설명하기보다는 다수의 비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심도 있는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의 문제의식이나 방법론에 입각하기 때문에 중국 정치체제에 대한 일반적 관심과 이해를 더 잘 반영한다고 하겠다. 또한 개별 연구들이 정치체제의 특정한 일면을 다루는 것에 반해, 개설서들은 중국정치 전반을 나름대로 포괄하여 정치체제에 전반에 대한 기술을 시도한다. 따라서 각론적인 연구서들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입체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개설서들은 현재에 대한 일반적 설명에 비중을 두고 있다. 따라서 개설서들은 일차적으로 현재의 관심사와 그에 대한 기술에 비교적 충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영어권의 중국 이해에 대한 검토에 있어서 개설서들을 중심으로 하는 분석이 유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 정치체제에 관한 비교적 체계적인 개설서로는 모두 6권이 확인되었다. 개정판이 비교적 많이 나오는 편인데, 여기에서는 가장 최근의 개정판을 기준으로 하고, 필요할 때만 이전의 개정판에 대한 언급을 한다. 즉 Herold C. Hinton, *An Introduction to Chinese Politics*(1973); James R. Townsend, J., Brantly Womack, *Politics in China*(3rd ed. 1986); Kenneth Lieberthal, *Governing China: From Revolution Through Reform*(1995); June Teufel Dreyer, *China's Political System: Modernization and Tradition*(3rd ed., 2000); James C.F. Wang, *Contemporary Chinese Politics: An Introduction*(2002); Tony Saich, *Governance and Politics of China*(2nd ed. 2004)이다. 구체적으로 영어권 중국 정치체제 연구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영역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것은 첫째 서술체계와 방법론에 관한 문제이다. 여기서는 무엇보다도 과연 어떤 이론이나 이론체계에 입각하여 중국정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그러한 이론이나 이론체계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은 무엇인가. 통상적으로 미국의 중국연구는 중국학적인 측면보다는 지역연구 또는 사회과학적 측면이 크다고 한다.<sup>6)</sup> 즉 중국적 특수성의 존재를 이론적 수준에서 수용하기보다는 사회과학의 일반 이론으로 중국정치를 설명,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사회과학 일반이론이 원용되고 있는 것인가. 둘째는 연구 대상 내지는 그 범위이다. 그것은 영어권에서 중국정치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중국정치 개설서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다루어지고 있는가. 셋째는 중국 정치체제 기술에 나타나는 가치관 내지는 연구자의 규범적 평가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학문은 객관성과 가치중립성을 지향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비록 가치중립적 연구가 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그것은 연구자의 태도와 관련된다. 과연 이러한 가치중립적 자세가 미국의 중국정치 연구에서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아니한가.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서론에 이어 본문에서는 주요 개설서의 서술체계와 방법론에 대해서 다룬다. 전체적으로 각각의 개설서들은 어떤 서술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와 함께 어떤 방법론이 사용되고 있는가. 이어서 각각 개설서들의 대상과 범위에 관해서 다루어진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이러한 개설서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중국정치 연구의 규범적 특징을 드러내고자 한다.

6) 김영진, “중국정치 연구의 정체성에 관한 시론,” 『국제지역연구』, 제6권 4호 (2003년 1월), pp. 60-61.

## 2. 개설서에 나타난 기술체계와 방법, 대상

그렇다면 영어권 중국정치 개설서들은 어떤 서술체계와 방법론에 입각하고 있는가. 여기에서는 6권의 개설서들 차례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 H. Hinton의 *An Introduction to Chinese Politics*

먼저 Hinton은 1960년대 지역연구에서 중시되었던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 “이 글에서 채택된 접근법은 대체로 역사적 방법과 무엇보다도 질적인 판단 그리고 (필요한 정도에서) 직관에 기반을 둔 ‘고전적’ 정치분석이다. 이러한 방법에서는 주제의 외부에서 구성된 이론이나 방법론보다는 분석자의 경험과 판단이 더욱 강조된다.”<sup>7)</sup> 그는 어떤 모델이나 이론 자체의 엄밀성을 위해서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 시키는 것은 잘못이라고 간주한다. 중국체제에 대한 규범적 평가와 관련해서는 그는 중국 정치체제의 이념적, 정치적 가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임을 분명히 밝힌다.<sup>8)</sup>

이러한 입장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는 역사적인 기술을 시도한다. 연구의 범위에는 중국정치의 역사적 배경과 더불어 현대사의 전개, 그리고 이데올로기, 엘리트, 당, 정부, 군, 통치행위(선전, 치안, 법 등), 인민(정치참여와 동원, 교육, 소수민족 등), 외교정책, 대만문제 등이 포함된다. 기술방식에 있어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특정한 이론이나 방법론을 적용하기보다는 현실에 대한 역사적, 직관적 분석이 시도되고 있다. 그렇지만 Hinton은 현상에 대한 단순한 묘사나 중국의 특수성에 대한 강조에 역매이지 않는다. 오히려 중국의 정치체제는 끊임없는 (사회주의적) 혁명과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갈등의 상황에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따라서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이 중요한 인식론적 배경으로 중국정치의 전개와 정치체제의 각 구성요소들에 대한 진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 다만 당시에 지배하고 있던 동서간의 이념적 대립 그리고 저자가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 이념이나 체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으로 인하여 정치체제의 갈등적 요소가 과도하게 강조된다. 그에 반해 중국의 고유한 전통적 요소와 중국 정치체제의 정합성(integrity) 및 그 구조는 상대적으로 저자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 J. Townsend와 B. Womack의 *Politics in China*

Townsend의 방법론은 알몬드와 포웰의 『비교정치론: 체제, 과정 그리고 정책』<sup>9)</sup>에서 제시되고 있는 소위 구조기능주의 모델에 입각하고 있다. 이 모델에서 “모든 정치체제의 일반 과정은 사회내의 개인들이나 집단들의 이익, 목적, 욕망을 대표하는 요구를 정치적 결정으로 전환하고, 그것을 다시 정부구조를 통해서 적용하고 심판하는 과정”<sup>10)</sup>으로 본다. 이 정

7) Harold C. Hinton, *An Introduction to Chinese Politics*,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73, p. xi.

8) *Ibid.* p. ix.

9) Gabriel A. Almond and G. Bingham Powell, Jr., *Comparative Politics: System, Process, and Policy*, Boston: Little, Brown, 1978.

10) James R. Townsend and Brantly Womack, *Politics in China*. 3rd edition, Boston : Little, Brown, 1986, p.258.

치과정은 좀 더 구체적으로 투입과 산출 2단계로 나누어는데, 투입에서는 이익표출, 이익결집, 정치충원, 정치적 의사소통과 사회화 등 4가지 기능들이 다루어진다. 산출에서는 정책결정과 집행, 심판 등 3가지 기능들이 다루어진다. 이러한 모델은 원래 서구의 다원주의 정치과정에 대한 고찰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알몬드와 포웰은 개발 도상국가들의 정치체제에 대한 비교론적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지만, Townsend는 중국을 포함한 공산주의 정치체제의 기술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연구에서 일종의 사회과학적 방법에 나름대로 충실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개설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델이 중국의 정치체제를 과연 ‘적절하게’ 기술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제기될 수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구조기능주의 모델 자체와 관련된다. 그와 함께 모델을 충실하게 적용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대한 평가는 이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적어도 가장 쟁점이 될 수 있는 문제는 각각의 기능들이나 그것이 수행되는 구조들이 중국의 정치체제에서 어떤 분명한 구분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투입에 있어서 공산당의 독점적 지위로 인하여 이익표출을 위한 기능을 담당하는 대중조직의 독립성, 정당들의 이익결집의 제약 가능성, 마찬가지로 산출에 있어서 입법이나 행정, 사법부의 제도적 구분과 기능적 독립성 등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모델 창시자들의 의도와 마찬가지로 구조기능주의는 모든 정치체제를 비교적 시각에서 분석, 기술할 수 있는 하나의 틀이 될 수 있다. 해당 모델의 제한적 설명력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모델 자체의 유용성은 부정할 수 없다. 특히 공식적인 정치제도나 개념을 통한 분석이나 기술이 가질 수 있는 경직성이나 비교의 어려움 등을 고려한다면, 구조기능주의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오히려 문제는 위의 모델을 충실하게 현실에서 적용되고 있는가이다. 그것은 특히 중국의 정치과정이 비공개적인 상황에서 충분한 자료나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Townsend가 연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마오쩌둥 시기의 정치체제는 더욱 그렇다. 원래의 모델 창시자들이 의도한 것처럼 역동적인 정치과정에 대한 분석이나 기술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따라서 Townsend의 글도 그러한 제약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 J. Wang의 Contemporary Chinese Politics: An Introduction

한글로 번역되어 대학에서 교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 개설서가 J. Wang의 저술이다. Wang의 경우, 사회과학적 방법이 아니라, 외형적으로는 일종의 ‘중국학적’ 접근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는 사회과학적으로 체계화된 분석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정치적 사실들을 가능한 한 많이 보여줌으로써 그 자체로서 중국정치의 고유한 특징들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다. 그리하여 주로 시간적 전개과정에 대한 기술이 중점을 이룬다. 따라서 논의의 전개에 있어서 먼저 전통적 정치체제의 특징과 중국혁명의 역사적 과정에 대한 설명이 글의 도입부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Wang은 오늘날의 중국정치와 관련하여 정치사 자체를 기술하는 것은 아니며, 정치체제의 공식적 이념과 제도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정치이념과 관련해서는 공산주의 이념과 관련하여 마르크스-레닌주의, 모택동 사상, 등소평주의, 강택민 사상 등의 내용과 그것들이 형성되는 역사적 배경이 소개된다. 그와 함께 당과 국가 기구들의 조직과 운영, 엘리트의 특징과 관리체제, 법률체제와 집행, 지방정부 등 정치체제의 중요한 공식적 기구 및 제도가 다루어진다. 이때는 어떤 특정한 분석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제도와 관련된 법적, 사실적 설명이 이루어진다.

Wang이 시도하고 있는 공식적 제도들에 대한 법적, 사실적 설명이 갖는 장점과 한계는 비교적 분

명하게 드러난다. 그것은 크게 보아 중국연구에서 ‘중국학적’ 방법과 ‘사회과학적’ 내지는 ‘지역학적’ 방법 사이의 장단점이다. 무엇보다도 Wang의 저술이 사실이나 현상 자체를 보여주고자 한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개설서보다 많은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그렇지만 그와 함께 그것이 가지는 한계도 없지 않다. 현상이나 사실들을 통해서 본질에 접근하고자 하지만, 그것들의 가치는 여전히 시간적으로 제한적이다. 특히 중국과 같이 매우 급속한 제도적 변화과정을 거치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이러한 한계는 1980년 제1판 이후 2002년까지 제7판이 나온 것으로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아울러 현상과 사실의 전개에 대한 기술이 중국의 정치체제를 이해하는 데에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일관적인 설명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실제 정치현실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실적 설명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Wang의 경우에도 몇 가지 중요한 공식적 정치체제나 법에 대한 소개와 부분적으로 개혁(변화)의 과정에 국한될 뿐, 구체적인 현실의 역동성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좀더 구체적인 분석에 있어서 Wang의 기술은 근대화 이론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것은 현대 중국정치의 전개과정, 즉 신해혁명 이후 사회주의 시기 그리고 특히 개혁 시기는 전반적으로 근대화를 향한 정치적 과정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 K. Lieberthal의 *Governing China: From Revolution Through Reform*

따라서 Wang의 방법이 중국학적 방법에 충실한 것인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중국학적 방법이 서구의 경험적, 인식론적 모델이 아니라 중국의 고유한 정치적 특징을 보여주고자 한다는 의미라면, 그것은 단순히 공식적 제도들의 소개만으로 달성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중국학적 방법에 충실한 경우가 Lieberthal의 *Governing China*일 것이다. 그는 중국정치의 긴 진화적 과정의 “저변에 있는 역사적, 제도적, 그리고 문화적 힘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것들의 역동성과 구체적인 함의를 탐구”하고자 한다.<sup>11)</sup> 그와 더불어 그의 글은 중국정치의 이러한 구조적 성격을 현안 문제의 분석과 설명에 적용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Lieberthal의 중국에 대한 접근은 특히 Townsend보다 신중한 것 같다. 그는 중국의 경험은 서구의 개념적 모델로는 담아낼 수 없다고 전제한다. 마찬가지로 일반인들은 중국에 대해 매우 단순한 이미지(像)를 가지고 있다고 간주한다. 그리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 비교적 빨리 변화되고 있다. Lieberthal에 따르면 이러 잘못된 중국이해는 근본적으로 당장의 현실에서 전개되는 과정에만 집중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중국정치의 장기적인 진화과정에 영향을 주는 힘에 대해서 덜 주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그 진화과정의 바탕이 되는 “역사적, 제도적 그리고 문화적 힘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 역동성과 의미를 충분히 파악해야”.<sup>12)</sup> 이러한 중국적 요소들은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는데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의 글은 어떤 분석 개념이나 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상당한 부분이 근현대 정치사에 대한 서술에 할애되어진다. 그리고 권력구조와 조직을 기술하는 데에 있어서도 통상적인 방식과는 달리 공식기구들에 대한 소개에 그치지 않고 좀더 현실적인 권력계통에 주목한다. 이를테면 수직과 수평적인 권력계통의 실질적 관계, 정부에 대한 당의 통제, 간부관리, 후계자선정 문제 등이 다루어진다.

11) Lieberthal, Kenneth, *Governing China: From Revolution Through Reform*, New York: W.W. Norton & Company, Inc., 1995, p.xvii.

12) *Ibid.*

### T. Dreyer의 China's Political System: Modernization and Tradition

Dreyer의 글은 방법론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한 흔적이 보이고, 다른 개설서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일단 그는 중국의 정치체제를 “이 나라 [중국]의 독특하고 인상적인 토착문화 요소를 원래 서구에서 진화된 사업화와 현대화의 형식들과 조화를 이루게 하고자 하는 역대 리더십의 노력을 그 핵심적 방향으로 간주한다.”고 밝히고 있다.<sup>13)</sup> 그러면서 서구적 정치체제에 대한 기술방법, 이를테면 투입과 산출과 같은 도식, 이익집단과 같은 개념 등을 적용되기 어렵다고 간주한다. 마찬가지로 대개의 개설서에서는 당연하게 간주하는 공식적인 당과 국가기구들에 대한 기술은 중국의 정치과정을 보여주지 못한다. 따라서 그에 대한 기술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있는 것인가. 사실 위에서 인용한 것처럼 Dreyer는 중국정치에 대한 기술에 있어서 중국적 특수성이 가지는 중요성을 매우 강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물론 글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그것을 일정한 분석의 틀로 체계화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이다. 그 결과 그가 선택하는 방법은 매우 지루한 역사적 진행과정에 대한 기술이다. 다시 말해 중국의 독특한 전통적 배경과 근대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각종 특수한 문제들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다양한 배경과 속성의 엘리트들과 같은 요소들이 그의 화두가 되는 것이다. 그 결과 이 책의 절반 정도가 개국 이후부터 경제개혁에 이르는 장기간의 역사를 기술하는 방식이 취해지고 있다. 당과 국가의 제도나 엘리트 등 개설서에서 거의 보편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문제들은 이러한 역사적 전개과정을 통해서 현실적인 모습으로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앞서 언급된 대부분의 개설서에서 정치사를 일종의 과거의 유산 내지는 정치적 배경으로 제한되어 이해한 것과는 분명 다르다고 하겠다.

역사적 전개를 기술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정치는 기존의 개념으로 담아내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따라서 특수하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그렇지만 Dreyer에게 중요한 것은 여전히 현대화라고 하는 흐름에서 중국의 전통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인가이다. 따라서 그의 관심은 중국의 현대화이며, 그렇기 때문에 전통과 현대의 이분법적 접근이 강하게 투영되어 있다. 그가 다른 개설서와는 달리 정치경제학적 측면들, 이를테면 경제개혁, 교육, 보건과 인구, 예술과 저널리즘 등의 여러 정치사회학적 영역도 정치체제의 기술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한다.

### T, Saich의 Governance and Politics in China

Saich의 글은 아마도 가장 최근에 출간된 개설서일 것이다. 전체적인 틀은 Wang과 유사하게 중국학적 접근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거기에는 일정한 사회과학적 분석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중국 정치사의 전개와 주요 현안 문제들을 제기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부적인 논술의 전개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제목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거버넌스와 관련된다. 그는 이 개념을 통해서 중국정치에 대한 기술을 ‘단순히 정부제도나 행정부서의 기능에 대한 기술을 넘어서 국민 개개인, 집단, 공동체가 국가와 어떻게 연관되는가 하는 보다 넓은 이슈들’<sup>14)</sup>을 보여주고자 한다. 따라서 그의

13) June Teufel Dreyer, *China's Political System: Modernization and Tradition*, 3rd edition, New York, NY: Longman, 2000, p.xv.

14) Tony Saich, *Governance and Politics of China*, 2nd edition, Basingstoke, Hampshire, 2004, p. xvi.

기술에는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정치체도와 과정들, 시민사회나 국제사회의 역할 등도 포함된다. 따라서 그는 중국사회의 다양성과 역동성 그에 따른 각종 현안 문제들을 적극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엘리트, 이데올로기 등은 다루어지지 않고, 중앙과 지방의 기본적인 정치체도에 대한 설명에 국한된다. 그에 반하여 이제까지 중국정치 기술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정치참여(선거, 시위 등), 국가-사회관계, 경제정책(경제개혁, 농업, 공업, 금융), 사회정책(가족계획, 의료, 이주, 빈곤 문제) 등을 상세히 다룸으로써 중국정치 체제에 대한 기술의 범위가 좁은 의미의 정치권력에서 사회, 경제 영역의 정책 차원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표 1] 연구의 대상과 영역

저자	출판년도	중국 정치체제 기술의 대상과 내용
Hinton	1973	연구방법, 과거의 유산, 정치사의 전개, 이념, 리더십, 당, 정부, 군, 정치통제, 경제정책, 대중동원과 조직, 외교정책, 대만문제
Townsend	1986	연구방법, 역사적 기원, 정치체도와 정책, 이데올로기, 정치사회화와 커뮤니케이션, 정치적 이익/충원/갈등, 정치과정, 현대화
Lieberthal	1995	제국의 유산, 근현대정치의 전개, 정치체제, 조직, 간부, 후계, 경제발전, 환경, 국내외 정치전망
Dreyer	2000	전통적 정치체제, 근대화, 공산당의 등장과 정치사적 전개, 경제정책의 전개, 사법체계, 군, 교육, 보건과 인구, 예술과 저널리즘, 소수민족과 통합, 외교정책
Wang	2002	역사적·문화적 배경, 정치사의 전개, 이데올로기의 변천, 정치체도(당과 국가), 엘리트와 간부, 법률체계, 지방정치, 광역중국(홍콩, 마카오, 대만), 군, 민주화운동, 경제개혁, 사회정책(교육, 과학기술, 지식인정책 등)
Saich	2004	배경(환경과 당의 정책), 정치사의 전개, 당, 중앙정부, 지방정치, 정치참여, 국가-사회관계, 경제개혁정책, 사회정책(가족계획, 의료, 이주, 빈곤), 외교정책)

### 3. 중국 정치체제에 대한 규범적 평가

중국 정치체제에 대한 분석 그리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규범적 평가나 전망과 관련하여 외부의 지역연구가 범하기 쉬운 오류는 없는 것인가. 발전된 시장경제 국가들의 경험에 바탕을 둔 정교한 경제이론이나 모델들이 시장경제가 발전하지 않은 국가의 특수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고 그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마찬가지로 서구의 다원주의적 정치이론이, 서구의 현실 자체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도외시하고라도, 과연 다른 배경이나 조건들은 가진 국가들의 현실에 대한 분석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오히려 외부의 관찰자보다는 해당 국가 내에서 일상적이고 직접적인 문제로서 안고 있는 사람들의 이해와 요구들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이러한

모순이나 갈등은 지역연구 자체가 어떤 보편성과 객관성을 주장하거나 상정하는 데에서 발생한다. 사실 지역연구의 출발이 제국주의의 식민지 개척과 그것을 위한 이해의 요구에 기반을 두어 왔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지역연구는 일종의 지역정치적 행위로서 간주되어야 하는지도 모른다. 개설서의 저자들이 모두가 객관적인 기준에 입각하여 중립적으로 중국정치 체제를 묘사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학문의 기본적인 요건이기도 하다. 따라서 개설서의 저자들은 중국의 정치체제에 대한 규범적 판단을 최대한 자제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의 저변에서는 일정한 규범적 판단이 흐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대개 일정한 공통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만, 때로는 정확한 현실 이해와 무관할 수도 있다. 중국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인들 다수가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거기에는 중국인과의 정서적 차이, 비민주성이나 인권탄압과 같은 도덕적 판단, 국제정치나 경제적으로 중국의 위상강화에 따른 위기의식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오늘날과 같이 개방적인 시대에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그와는 달리 영어권 중국전문가들은 중국에 대해서 비교적 온건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중국전문가들의 비교적 온건한 입장은 부분적으로 학문 자체의 중립성 지향에서 올 수도 있지만 상당 부분 현실에 대한 좀더 객관적인 이해에서 온다고 볼 수도 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연구대상으로서 중국적 논리에 대한 수용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다. 이것은 특히 저널리즘의 대중적 저술이나 비교한다면 매우 두드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권리나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규정을 포함하여 ‘중국’의 입장을 다룰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정한 규범적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고 하겠다. 학문의 중립가능성을 둘러싼 오랜 논쟁과는 무관하게, 연구자와 연구대상 사이에 존재하는 정치체제와 이념적 성향의 차이를 인정하는 순간 그러한 인식론적인 갈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역연구의 의의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서구적인 시각에서 다당제에 입각한 서구식 민주주의와 근대화와 같은 개념은 부정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기준이 된다. 따라서 비록 중국의 특수성이 분명하게 강조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절대적 가치기준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중국적 특징이 부각되는 것은 서구적 가치와 비교하여 다른 중국의 타자성을 드러내는 것에 일차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의 생각으로는 지역연구가 대체적으로 갖고 있는 목적과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법론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고 본다. 지역연구의 목적은 지역연구가 근본적으로 연구자가 속한 사회의 요구, 즉 정치경제적 요구를 충족하는데 주어지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지정학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정보의 수집과 더불어 일정한 정책의 합리화 그리고 사회과학의 이론적 풍토가 결합되었다. 그 결과 방법론적으로 실증주의적 중국연구가 일반적으로 관통하게 되었다. 다만 중국의 경우 엄밀하게 실증주의적 방법론이 가능할 만큼 정보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론도 충실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실증주의도 대개는 원래의 이론적 엄밀성을 상실하고 현상에 대한 기술과 연구자의 입장에서 평가에 그치는 경향이 높다고 하겠다.

## 4. 평가

중국정치에 대한 영어권의 자료가 양적으로 매우 압도적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매우 분석적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사회주의 체제의 성격상 다른 여러 사회과학과 마찬가지로 대학에서 중국에서 학문으로서 정치학 연구는 활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현대 중국정치 연구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외부에서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sup>15)</sup> 개혁 이후 점차 중국정치 연구는 대학에서 전공과목이 되면서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적 체제의 성격과 결합하여, 중국 내에서 중국정치 연구는 정치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서구, 특히 영어권의 중국정치 연구가 주도적인 위치에 있다.

그런데 영어권의 중국정치 연구는 그 방법론에서 그 사회의 시각을 반영한다. 특히 비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중국정치학 개론이나 입문서는 더욱 그렇다. 그것은 주로 정치사, 정치제도, 정치이념, 정치엘리트에 대한 소개가 대부분이다. 서구정치와 유사하게 다원주의적 측면에서 이익집단, 정치사회화, 정치문화, 정치적 의사소통과 같이 사회의 정치적 기능에 주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것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것은 앞서 언급된 중국학적 접근 방식이 영어권 개설서의 특징임을 말해준다. 다만 그러한 방법이 엄격한 의미의 중국학적 방법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것은 실제 중국적 특수성을 체계적 개념이나 분석의 틀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대화라고 하는 서구적 특징의 획득 과정에서 중국의 구체적인 경험을 강조할 뿐이기 때문이다.

Wang을 비롯한 개설서 저자들은 ‘정치적 행위를 구조지우고 의미를 부여하는’<sup>16)</sup> 역할을 하는 역사적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과거와 현재의 단계 사이의 연속성을 포함하여 균형 잡힌 이해가 중국정치 연구에서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되는 것이다. 그 결과 현대 중국정치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변화와 단절의 정치에 대한 기술의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혁명적 상황의 반복으로 인하여 중국정치 자체가 매우 불안정하고 정치적 변동이 심하였다. 그와 함께 특정 시점의 중국정치에 대한 기술은 자주 통시적으로 그 유효성을 갖지 못하였다. 정치현실과 이론에 있어서 단기적 성격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영어권 중국정치 연구의 중요한 특징이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정치의 불안정성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연구자의 연구방법론상에 있는 것인가. 다만 중국정치에 변화와 마찬가지로 의미 있는 연속성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오류는 상당 부분 연구자의 연구방법론에 근거한다고 하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연구에 있어서 어떤 방법론상의 차이를 중시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시각은 국내 중국연구에 있어서도 상당히 수용되고 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국내 중국정치 연구의 역사가 짧고, 여전히 연구의 축적이 적은 상황에서 특히 서구의 중국연구 성과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연구가 제국주의의 확대 과정에서 식민지 사회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는 것, 동서 냉전의 구조하에서 상대방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의 구축이 오랫동안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15) 개별 국가들에서 중국정치 연구 상황에 대한 소개로는 정재호 편, 『중국정치연구: 영역, 쟁점, 방법 및 교류』, 서울: 나남, 2000.

16) Townsend, James R. and Brantly Womack, *Politics in China*. 3rd edition, Boston : Little, Brown, 1986. p. ix.

오늘날에도 지역연구의 성격이 상당 부분 국제정치나 시장확대의 요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등을 고려해 볼 때, 서구의 중국정치 연구 방법이 전혀 객관적인 토대에서 전개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지식사회학의 측면에서 볼 때, 지역연구 활동도 한 사회의 학문이나 가치 체계의 일부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편성에 대한 주장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방법론이나 가치관에 있어서 동서양 사이의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최근 중국유학과 현지조사 등을 통한 접촉이 크게 확대되면서 오히려 '중국적' 사고나 입장이 국내 중국연구에서도 점차 강조되고 있다. 서구의 그것이 가지는 압도적 우위의 현실에 비추어 본다면, '중국적' 사고나 입장에 대해서는 더 많은 소개가 있어야 할 것이지만, 그것에 대한 치중이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국내 중국정치 연구의 정체성에 대한 요구와 가능성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다.

## 참 고 문 헌

- 김영진, “중국정치 연구의 정체성에 관한 시론,” 『국제지역연구』, 제6권 4호 (2003년 1월), pp. 55-80.
- 전성홍, 이민자, “한국과 중국정치 연구,” 정재호 편, 『중국정치연구: 영역, 쟁점, 방법 및 교류』, 서울: 나남, 2000, pp. 259-308.
- 정재호 편, 『중국정치연구: 영역, 쟁점, 방법 및 교류』, 서울: 나남, 2000.
- Almond, Gabriel A. and G. Bingham Powell, Jr., *Comparative Politics: System, Process, and Policy*, Boston: Little, Brown, 1978.
- Dreyer, June Teufel, *China's Political System: Modernization and Tradition*, 3rd edition, New York, NY: Longman, 2000.
- Goldstein, Avery, "The Domain of Inquiry in Political Science: General Lessons from the Study of China," *Polity*, 21: 3(Spring 1989), pp. 517-537.
- Halpern, Nina P. "6. Studies of Chinese Politics," David Shambaugh ed. *American Studies of Contemporary China*, New York: M.E. Sharpe, pp. 120-137.
- Harding, Harry, "The Study of Chinese Politics: Toward a Third Generation of Scholarship," *World Politics*, Vol. 36, No. 2 (Jan. 1984), pp. 284-307.
- Hinton, Harold C., *An Introduction to Chinese Politics*,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73.
- Lieberthal, Kenneth, *Governing China: From Revolution Through Reform*, New York: W.W. Norton & Company, Inc., 1995.
- Tony Saich, *Governance and Politics of China*, 2nd edition, Basingstoke, Hampshire, 2004.
- Townsend, James R. and Brantly Womack, *Politics in China*. 3rd edition, Boston : Little, Brown, 1986.
- Wang, James C. F., *Contemporary Chinese Politics: An Introduction*, 7th edition,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Education, Inc., 2002.

Abstract

## A Preliminary analysis of the methodology of some textbooks on Chinese politics

Kim, Young Jin\*

This paper tries to examine the recent trends of research and methodology of Chinese studies in english-speaking nations and to address the identity question of Chinese studies in Korea. For that purpose, it analyses above all some textbooks on the Chinese political system written in English.

For the analysis of the text books, three areas are to be examined. The first area is the question of descriptive system and methodology, in other words, on what kinds of theories the textbooks are based? The second area is the object of the research. What kinds of themes are included in the studies of Chinese politics? The third area is the question of normative assessment of the researchers about Chinese politics. In other words, to what extent are the studies value-neutral?

The preliminary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Most of the textbooks adopt formally the approach of sinology, not that of Chinese studies. In other words, they seem to be focusing on the uniqueness of the Chinese context. A more critical examination on the text books, however, shows that the uniqueness is not seriously taken into consideration by them, but that it is highlighted just against the process of the modernization in the sense of westernization.

■ 논문접수일 : 2007년 4월 25일, 논문심사일 : 2007년 5월 14일, 게재확정일 : 2007년 5월 17일

---

\* Professor, Kookmin University(Dept.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